

국내 기초광학 · 레이저 관련 연구 에 견인차 역할

광학부품 및 광학기기검사장비 제조전문업체 남일광학기기

남일광학기기(대표: 김일남)는 1988년 10월 남일기공이란 상호로 처음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레이저와 일반 광학 실험 및 연구 검사장비 등을 생산해 오고 있다. 회사 창립 이래 소형 정밀 Stage를 비롯하여 Optical Components 생산 품목인 Rotation Stage, Translation Stage, Motion Stage, Motion Controller 등을 국산화하여 저렴한 가격에 국내 각 기관 및 대학의 연구실과 실험실에 공급하며 국내 기초 광학 및 레이저 관련 연구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취재 | 박지연 기자



▶ 남일광학기기의 김일남 사장

무엇이든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결과를 맺듯, 광학산업에서도 기초광학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오늘날의 광학산업이 첨단산업으로 각광받기까지는 대학 및 연구소의 실험실에서 밤낮 없는 연구노력이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각종 광학부품 및 지그를 제조하고 있는 남일광학기기는 이러한 실험실 및 연구실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회사다. 1988년 10월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국내 대학 및 연구소 실험실에 공급한 관련 부품 수는 500여 가지가 넘는다. 이 회사가 설립된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실험실에서 쓰는 광학지그는 대다수 수입품이었다. 그러나 설립이래 소형 정밀 Stage부터 하나



둘 국산화를 시도한 것이 Rail 및 Rail Systems, Post 및 Post Holders, Specialty Mounts, Optical Mounts, Assembly Hardware, Base 및 Base Plates, Translation Stages, Rotation Stages, Breadboards, Motion System 등 다양한 광학부품류를 국산화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이제는 대다수의 대학 및 연구소 실험실에서 남일광학기기는 끈끈한 동반자가 되었다.

남일광학기기에서 제작하고 있는 각종 광학부품류는 광학관련 대학 실험실이나 연구소 등에 주로 납품되는데 렌즈나 레이저를 정확하게 잡아주는 데에 주로 쓰인다. 과거에는 광학쪽과 관련된 학과나 연구소에서만 주문의뢰가 들어왔으나 광학이 첨단화, 세분화, 응용화되어가는 추세에 맞추어 대학의 기계공학과, 우주공학, 화학과 등을 비롯하여 응용광학 연구소 실험실, 벤처기업의 연구개발실 등을 통한 주문의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김일남 사장은 최근 들어 시장의 특징에 대해 “광섬유광학이 부상하면서 이쪽의 연구개발이 집중되는 한편 기초광학쪽은 부진했다”며 “비전업체에서 최근 들어 광학부품을 많이 찾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는 카메라폰과 대형 텔레비전 등 첨단 IT장비의 부상과 함께 이에 관련한 부품개발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일광학기기에서는 PDP와 LCD의 세정 장비와 접촉각 측정기 등을 개발한 바 있다.

설립 이후 소형 정밀 Stage부터 지금까지 500여 가지 광학부품 국산화

일반 렌즈와 광학부품을 대량생산하는 제조업체와는 달리 남일광학기기에서는 실험실에서 쓰이는 지그를 공급하다 보니 다품종소량 생산이 당연하다. 김일남 사장은 “한 품목에 10개 정도만 나가도 우리에게는 대량생산이다”고 웃음 짓는다.

남일광학기기의 주 고객층은 아무래도 학교와 연구소 쪽이 대부분이다보니 보통 석사과정때 만나 인연을 맺은 사람이 박사과정을 거쳐 학계나 기업체 연구소 등에 들어가서도 꾸준하게 고객이 된다.

김일남 사장은 “이들이 우리 회사의 고객이기 이전에 개인 한 명 한 명이 남일광학기기의 영업사원이나 다름없다”며 “이들에 의해 입소문을 듣고 회사를 찾는 고객들도 꾸준하고 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 회사 설립부터 지금까지 고객들이 있었기에 현재의 남일광학기기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김일남 사장은 그만큼 고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자산이라 여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현재 500여 가지나 되는 광학부품류를 국산화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고객들의 목소리를 쉽게 지나치지 않고 항상 귀를 기울이고 새



▶2001년 ISO 9001인증획득 당시 김일남 사장(사진 왼쪽)



▶2003년 한국기계전에 참가했을 당시 부스 전경



로운 것에 대해 탐구하고 도전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외국 유학생활이나 해외 연구소 경험을 통해 선진광학제품을 이미 경험한 고객들이 남일광학기기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주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하고 보완해 가다보니 수입품보다 월등한 최고급의 국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의 학 레이저 분야 쪽으로 자체 브랜드 제품 개발 진행

“고객만족 극대화”라는 품질목표에 따라 지금까지 연마해온 노하우를 기초로 전문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온 이 회사는 품질 기계검사장비인 Calibrator Laser Interferometer System을 도입하여 제품 정밀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2001년 ISO 9001 품질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정보화시대에 맞게 홈페이지(<http://www.namiloc.com>, www.namiloc.co.kr, 한글인터넷주소 : 남일광학기기)도 업계에서 비교적 일찍 만들어 온라인 주문 상담을 통해 더욱 신속 정확한 주문시스템을 갖춘 것도 이 회사의 영업력을 높이는 구실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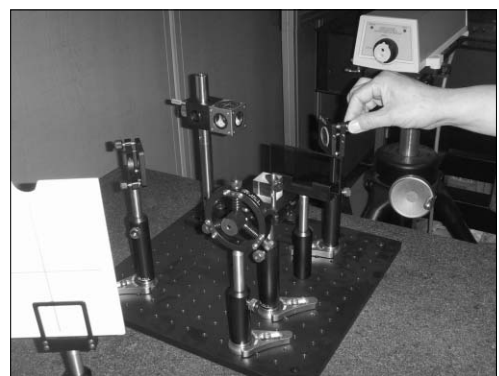
지금도 김일남 사장은 항상 가까이에서 고객들의 목소리를 청취코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와 광주 광산업단지 방문은 기본이고 전국 각지의 대학과 연구소 실험실을 발 빠르게 누비고 다닌다. 또한 학회나 협회에서 주최하는 광학관련 전시회에는 빠지지 않고 참가하여 신제품을 알리고 정보를 수집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기초광학분야의 부품 및 지그 공급을 통해 꾸준한 영업망 구축과 함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남일광학기기는 올해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준비 중에 있다. 의학레이저 분야 쪽으로 남일광학기기의 브랜드를 걸고 금년말 출시를 목표로 제품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제품 출시후 시장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으면 내년 초 학회 주최의 광학전시회를 통해 첫선을 보인다는 계획인데 회사 내에서도 향후 신사업분야로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요즘 제품 개발에 탄방울을 흘리고 있다.



▶생산기술부에서의 작업광경



▶남일광학기기에서 제작한 간섭계